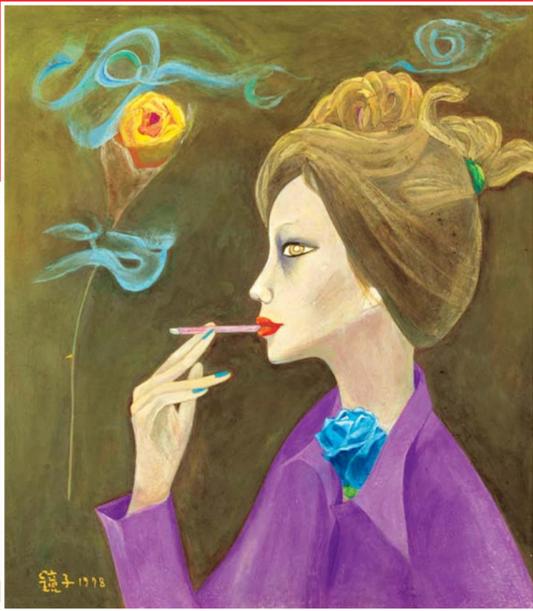


인물화로 만나는 한국 근현대 미술 100년 발자취

개관 50년 갤러리현대, 3월1일까지 '한국 근현대 인물화-인물 초상 그리고 사람' 전
고희동·이중섭·박수근·이응노·나혜석 등 시대정신 구현 화가 54명 작품 71점 전시
오지호·김환기·천경자·임직순·손상기·황영성·강연균 등 광주·전남 작가들 참여

천경자 작
'탱고가 흐르는 황혼'
(1978)
<서울특별시 제공>



'인물화를 통해 본 한국 근현대사와 미술사.'
수많은 작가들이 그린 '인물화'는 다양한 인간상을 담아낸 시대의 초상화이자, 역사의 자화상이다.

내년 개관 50주년을 맞는 갤러리현대가 '한국 근현대 인물화-인물 초상 그리고 사람' 전을 연다. 18일 개막해 내년 3월 1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대규모 기획전은 191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100년에 걸친 한국 근현대 미술의 발자취를 인물화라는 장르를 통해 살펴보고 한국근현대사를 돌아보는 전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고희동·나혜석·김환기·이중섭·박수근·오지호 등 시대정신과 독창적 화면을 구현한 화가 54명의 작품 71점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작은 미술평론가 유홍준 명지대 석좌교수와 최열 서울대 강사, 미술사학자인 목수현 서울대 강사와 조은정 고려대 초빙교수, 박명자 현대화랑 회장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수개월 간 논의를 거쳐 선정했다.

이번 전시에는 광주·전남 출신 작가들의 작품이 대거 포함돼 있어 한국 근현대 미술사에서 우리 지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새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작고 작가 중에는 오지호·김환기·천경자·임직순·손상기의 작품을 만날 수 있으며 생존 작가로는 황영성·강연균·황재형·홍성담 작가가 참여했다.

오지호 화백이 도쿄예술대학 졸업작품으로 그린 '자화상' (1931)은 젊은 시절 오지호의 강인한 의지가 담긴 얼굴이 눈에 띄는 작품이며 인물의 형태와 의상, 배경 등에서 조선의 향토색을 느낄 수 있는 '아내의 상' (1936)도 관람객을 만난다. 추상화 '우주'가 홍콩 소더비 경매에서 132억원에 낙찰되면서 한국미술사를 새로 쓴 김환기 작품으로는 흰옷과 도자기 등 전통과 민족의 상징성을 원시적 색감과 형태로 풀어낸 '항아리와 여인들' (1951), '여인과 매화와 항아리' (1956) 두 작품이 나왔다.

천경자 화백의 작품은 강렬하다. 아기에 젖을 물리는 여인이 등장하는 '목화밭에서' (1954)와 담배를 피우고 있는 자유분방한 여성의 모습을 화려한 색감으로 묘사한 '탱고가 흐르는 황혼' (1978)이 전시됐다. 그밖에 조선대 교수를 지낸 임직순의 '여인' (1961), 40세의 나이에 요절한 여수 출신 작가 손상기의 '공작도시-취녀' (1982)도 눈에 띈다.

강연균 화백의 '시장 사람들' (1989)은 소박한 서민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수채화 작품이며 황영성 화백의 '겨울 가족' (1985)은 집안에 소와 닭이 함께 있는 가족의 모습을 재미있게 묘사한 작품이다. 또 보성 출신으로 탄광촌에 거주하며 시대의 초상을 화폭에 옮긴 황재형의 '광부' (1980년대), 사회적 강한 작품을 발표해온 홍성담의 목판화 '봉선화' (2014)도 눈길을 끈다.

전시작 중 한국 근현대 미술사의 대표작들도 눈에 띈다. 평양 능라도를 배경으로 목욕하는 두 여인의 뒷모습을 그린 김관호의 '해질녘' (1916)은 한국인이 서양화 기법으로 그린 최초의 누드화다. 또 소달구지에 가족을 싣고 떠나는 모습을 그린 이중섭의 '길 떠나는 가족' (1954), 전쟁이 끝나고 마주친, 아기 엮은 단발머리 소녀를 담아낸 박수근의 '길가에서' (1954)를 비롯해 이인성·나혜석·이응노·장욱진·이만익의 작품도 전시된다. 그밖에 신학철·강요배·오윤·암옥상·이중구 등이 그린,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
<사진제공 갤러리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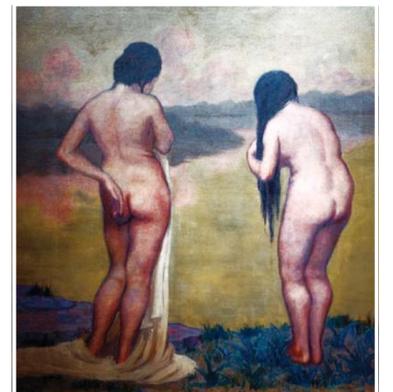
박수근 작 '길가에서' (1954)



황영성 작 '겨울 가족' (19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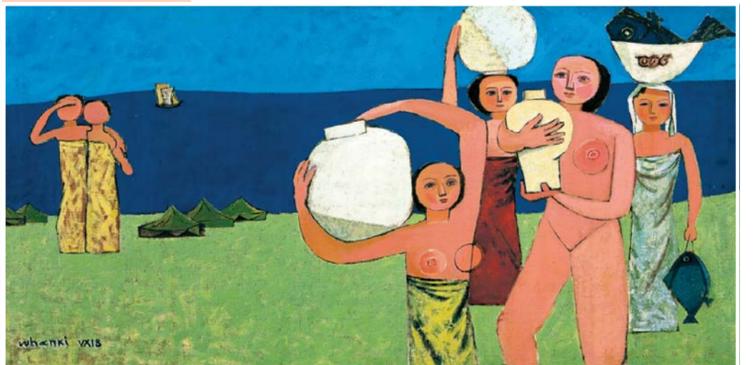
강연균 작 '시장 사람들' (1989)



김관호 작 '해질녘' (1916) <도쿄예술대학 제공>



임직순 작 '여인' (1961)



김환기 작 '항아리와 여인들' (1951) ©(재)환기재단·환기미술관 제공



오지호 작 '자화상' (1931) <도쿄예술대학 제공>



이중섭 작 '길 떠나는 가족' (1954)